



SK에너지, 동반 성장 통해 협력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



SK에너지 울산 공장의 정기보수를 전담하는 3개 협력사가 지난 4월 초 베트남 BSR(Binh Son Refining & Petrochemical

Co. Ltd.)사의 정기보수 업체로 선정돼 정기보수 업무 수행에 나섰다.

2009년 베트남 최초의 정유공장인 파트 정유공장을 건설한 베트남 BSR사는 올 여름 첫 정기보수를 앞두고 SK에너지의 협력사인 제이콘, 유백, 대창기계기술을 정기보수 업체로 선정했다.

3개사는 석유화학분야 설비 건설과 정비 보수 용역을 수행하는 울산 소재 전문기업으로, SK에너지 울산공장의 설비보수, 정기보수 등을 담당하고 있다.

BSR사는 3개사가 지난 40여년간 SK에너지 설비보수를 담당하며 쌓은 유지 보수 관련 노하우를 높게 평가해 외국 경쟁업체들 대신 3개사를 이번 베트남 정유공장의 첫 정기보수 담당업체로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SK에너지 성학용 BSR운영본부장은 "지난 47년간 축적해온 SK에너지의 수준 높은 설비 보수 기술력과 협력사의 역량이 더해져 시너지 효과 및 상생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SK에너지의 글로벌 사업 확장에 대비해 협력업체도 더 이상 국내 시장에만 한정 하지 않고 세계로 진출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번 계약의 의미를 밝혔다.

도지사, 유상곤 서산시장 등 정부 관계자, 고객사 및 협력사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터리 서산 공장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산일반산업단지내 7만평(23만 1천m²)부지에 내년 초 1차로 200MWh 규모의 자동화 양산라인을 구축할 예정인 SK이노베이션은 내년 말까지 추가 300MWh 규모의 라인 건설을 완료해, 대전시 유성구 SK이노베이션 글로벌테크놀로지 내에서 가동중인 1호라인(100MWh 규모) 포함 총 600MWh 규모의 양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순수 고속전기자 기준 연간 3만대 이상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양산라인 경쟁에 본격 가세함으로써, SK이노베이션이 명실상부한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메이저 플레이어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원 SK수석부회장은 "세계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이 이번 착공식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배터리 서산 공장으로 충남도 지역에 고용효과가 발생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배터리와 연관된 소재부품 업체와의 상생협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SK에너지, 신한카드 100원 주유할인 시행



SK에너지가 신한카드사와의 카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신한카드 대상 100원 주유할인에 들어갔다.

SK에너지는 2011년 4월 20일 0시부터 7월 6일까지 SK에너지 주유소에서 신한카드로 휘발유·경유를 결제하는 모든 고객에게 100원 주유할인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서산 공장으로 '녹색이노베이션' 나선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5월 30일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서산일반산업단지내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서산 공장 현장에서 최재원 SK수석부회장, 구자영 SK이노베이션 사장 등 SK관계자, 최종경 지식경제부 장관, 안희정 충청남도

주유할인은 신용카드의 종류와 상관없이 적용되며 결제 금액에 대해 리터당 100원씩 청구할인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SK제휴신용카드 보유 고객은 기존 주유할인 혜택에 이번 리터당 100원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주유비 절감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

이번 신용카드 주유할인에 대해 SK에너지 관계자는 “국민 고통 분담, 물가 안정 협력 공감대 속에서 주유할인을 위한 카드 시스템을 빠른 시일에 구축할 수 있었다”며, “이번 신용카드 주유할인을 통해 리터당 100원 인하 혜택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일본 지진 피해 적극 지원

SK이노베이션이 지진, 해일 등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일본 최대 에너지기업인 JX에너지 등 에너지 업계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구자영 사장이 지난 3월 16일 일본 JX에너지 본사를 직접 방문해 이번 지진 피해에 대한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태원 SK회장이 지난 월요일 JX홀딩스(JX에너지의 모회사) 회장과 경단련(경제단체연합회) 의장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보낸 서신에 대해 니시오(Nishio) JX홀딩스 회장과 와타리(Watari) 경단련 의장의 감사 서신이 오간 데 이어 이번 방문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문에서 SK이노베이션은 JX에너지의 동북지역 정유공장에 투입 예정이었으나 공장 가동 중단으로 처리 부담이 되던 중동 원유 2백만 배럴(약 2억달러 상당)을 구매하기로 한 데 이어, 추가적인 원유 구매도 검토하기로 협의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도 현재 원유 탱크의 저장 여력이 부족하고, 제품 수출 계약이 이미 완료된 상태인 등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본 지진 피해 복구 지원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협력하기로 했다”며, “원유 200만 배럴 구매 및 휘발유 26만 배럴 수출에 대해선 JX에너지에서 감사 서신을 보낼 정도로 실질적인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대 에너지기업, SK이노베이션의 석유개발



SK이노베이션의 석유개발 사업이 2010년 사상 최대 실적을 낸 데 이어 2011년에도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7,830억의 매출과 4,155억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국내 기업 최초로 석유개발 사업에서 영업이익 4,000억원을 돌파했던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분기 실적 설명회에서 석유개발사업이 매출 2,778억, 영업이익 1613억을 기록했다고 밝혀 연간 매출 1조 달성을 위한 첫 단추를 깔끔하게 꿰었다는 평가다.

또한, 2010년까지 최근 3년간 석유개발 사업에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어서는 성과를 기록하는 한편, 2,096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었던 2005년과 비교해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침없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011년 현재 14개국 26개 광구에서 활발한 자원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며, 페루, 베트남 등 생산광구에서 우리나라 전체가 8개월간 쓸 수 있는 5억 3000만 배럴의 지분 원유를 확보했다. SK이노베이션은 2015년까지 지분원유 보유량을 10억 배럴까지 늘린다는 야심찬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10억 배럴은 우리나라 전체가 1년 4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기존의 사업이 탐사 광구 확보 및 개발에 집중되었다면, 페루 LNG 플랜트 건설로 인해 SK이노베이션의 사업이 제품 생산, 수송, 수출까지 이어지는 완벽한 생산 체계를 형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GS칼텍스, 창립 44주년 기념식 거행



GS칼텍스는 지난 5월 18일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허동수 회장을 비롯, 임직원 및 자회사 임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 창립 44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모범사원(35명), 공로사원(24명), 장기근속사원에 대한 시상과 함께 환경안전경진대회 표창, 2010년 자원봉사 활동 실적인증서 수여 등의 행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허동수 회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GS칼텍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모든 임직원들에게 감사와 치하의 뜻을 전하고", "창의적 사고와 악착같은 실행력을 바탕으로 내 손으로 초일류 회사를 만드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GS칼텍스 제3, 제4 중질유분해시설 준·기공식 개최



GS칼텍스는 지난 5월 12일 여수공장에서 허동수 회장과 김항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외빈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 중질유분해시설 준공식과 제4 중질유분해 시설 기공식을 가졌다.

2008년부터 총 2조 2천억 원이 투입된 제3 중질유 분해

시설은 작년 12월부터 완전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추가로 1조 1천억 원을 투자하는 제4 중질유분해시설은 2013년 상업가동을 하면 회사는 하루 26만8천 배럴의 국내 최대 고도화 능력과 35.8%의 고도화 비율을 갖추게 된다.

허동수 회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GS칼텍스는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친환경 기술과 청정에너지 개발을 선도하는 녹색 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PCT 음극재 공장 기공식 개최

GS칼텍스는 지난 5월 13일 경북 구미 산업단지 내 PCT(파워카본테크놀러지) 공장에서 일본 최대 정유사인 JX NOE(구, 신일본석유)와의 합작법인인 PCT의 리튬이차전지용 음극재 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허동수 회장을 비롯하여, JX NOE 키무라 야스시(Yasushi Kimura) 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 공장은 올해 연말까지 기계적 준공을 마치고 내년부터 연산 2천 톤 규모의 음극재를 생산할 계획으로, 이는 지난해 세계 리튬이차전지용 소프트카본계 음극재 시장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허동수 회장은 축사를 통해 "GS칼텍스연구진이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리튬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음극재의 국산화에 성공했다"며 "내년 초 생산공장이 가동되면, 국내는 물론 세계음극재 시장에서 글로벌 선도업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1 GS칼텍스 STAR Festival 개최

GS칼텍스는 지난 5월 17일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2011 GS칼텍스 STAR Festival'을 개최하였다.

허동수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최근 제3 중질유분해 시설이 완공되어 파트너 여러분께 친환경 고품질 제품을 더욱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며 "지난해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와 소비자만족지수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는 등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 파트너와의 상생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스타 페스티벌에서는 전국에 있는 GS칼텍스 계열 주유소 및 충전소, 조이마트, 오토아시스 등 총 4,500여 개의 사업장 가운데 적극적인 고객만족 경영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거둔 64개의 사업장을 '스타 파트너'로 선발하여 시상하였다.

제30회 GS칼텍스 매경오픈 골프대회 및 프로암 개최



GS칼텍스는 지난 5월 5일부터 8일까지 남서울 컨트리클럽에서 '제30회 GS칼텍스 매경오픈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4일間に 걸쳐 진행된 이번 'GS칼텍스 매경오픈 골프대회'에는 총 10억 원의 상금을 걸고 국내외 선수들이 출전해 우승컵을 두고 경쟁을 펼쳤으며 이번 대회에서 김경태 선수가 4라운드 합계 21언더파로 대회 최저타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5월 4일에는 GS칼텍스 주관으로 2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프로암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아부다비 사무소 개소식 참석

GS칼텍스 허동수 회장은 지난 3월 31일 UAE 아부다비에서 'GS칼텍스아부다비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세프(Yousef)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 총재, 권태균 주UAE 대사, 비롯하여 중동 및 일본의 상사·정유사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GS칼텍스의 아부다비 사무소는 상가를 법인 및 런던 사무소에 이어 세 번째 현지 사무소다. 허동수 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GS칼텍스와 UAE는 석



유수급과 관련하여 수십 년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더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아부다비 사무소를 개소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앞으로 UAE 등 중동 국가의 국영석유회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석유·석유화학은 물론 유전 개발 및 녹색성장 비즈니스 등 새로운 사업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11년 임금 위임 및 단체협약 조인식



GS칼텍스 사측과 노동조합은 지난 4월 27일 2011년 임금 위임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했다. GS칼텍스 노동조합은 발전적 노사 협력을 통하여 모범적 노사 문화 구축 및 경영 목표인 'Bridge to the Future' 달성을 위해 2011년도 임금에 관한 모든 사항을 회사에 위임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7년 연속 임금 위임 관행을 유지해 나가게 되었다.

GS칼텍스는 2011년 임단협을 통해 실무교섭을 통한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근로조건 조정 관행 및 7년 연속 임금 위임을 이어나감으로써 국내 최고 모범적 노사문화 기업으로서의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 S-OIL, 온산공장 확장 프로젝트(SEP) 완료



S-OIL은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1조 3천억 원을 투자하여 석유화학제품 생산량을 2배 이상 증대하는 '제2 아로마틱 콤플렉스(Aromatic Complex)'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지난 3월 건설 공사를 완료한 후 2개월여 동안 시운전을 마치고 당초 계획보다 2개월여 앞서 제품 생산을 본격화했다고 지난 5월 30일 밝혔다.

이로써 S-OIL은 단일공장 세계 최대 규모인 연산 160만 톤의 파라자일렌 생산능력을 확보,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석유화학 제품 공급자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S-OIL은 이 시설 가동으로 연간 매출액이 3조 5천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약 32억 달러의 수출증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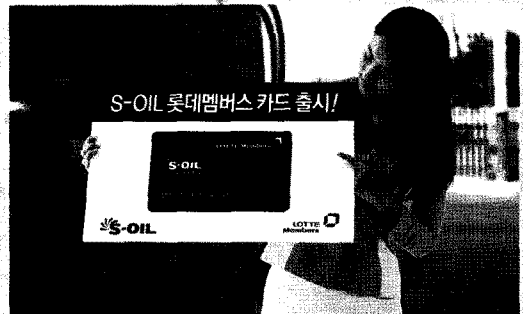
아흐메드 에이 수베이 CEO는 "제2 아로마틱 콤플렉스는 S-OIL의 사업 분야를 다양하고 탄탄하게 구축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원동력"이라며 "S-OIL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정유·유통기류 부문에서 이어 석유화학 분야에서도 새로운 강자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 태양광 사업 진출, 한국실리콘 지분 33.4% 인수

S-OIL이 태양광전지 주원료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한국실리콘의 지분참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진출한다. S-OIL은 지난 5월 30일 3자배정 신주발행(유상증자) 참여 형식으로 한국실리콘의 지분 33.4%(41,042,750주)를 2,650억원에 인수하는 전략적 투자를 결정했으며, 한국실리콘의 2대주주로서 기존 대주주인 오성엘에스티와 함께 Joint Venture 형태로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양측은 최종 계약서 작성 과정 등을 거쳐 6월 중에 본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S-OIL은 한국실리콘이 공장 건설 완료 후 초단기간에 세계 최고수준의 고순도 폴리실리콘(9-Nine)의 대량생산에 성공하는 등 검증된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투자를 결정했으며, 현재 진행중인 증설 투자가 완료되는 2012년에는 연간 12,000톤의 생산시설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폴리실리콘 제조업체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흐메드 에이 수베이 S-OIL CEO는 "최근 완공된 온산공장 확장 프로젝트가 기존 사업분야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면, 이번 신재생에너지 분야 진출은 S-OIL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확고한 기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 S-OIL 롯데멤버스 카드 출시



S-OIL은 지난 6월 1일 롯데그룹과의 멤버십 제휴를 통해 한장의 카드로 S-OIL 주유소(충전소)뿐만 아니라 롯데 계열 매장에서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S-OIL 롯데멤버스 카드'를 론칭했다.

이번에 S-OIL이 출시한 'S-OIL 롯데멤버스 카드'는 S-OIL과 롯데 양사의 멤버십 기능을 하나의 카드에 탑재함으로써 고객에게 휴대 및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하였으며, 발급고객은 기존 멤버십 카드와 동일하게 양사의 멤버십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챔피언스 클럽" 주유소 시상

S-OIL은 지난 5월 17일 저녁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2011년 S-OIL 챔피언스 클럽" 시상식을 열고 탁월한 경



영성과를 낸 주유소와 충전소들을 격려했다. 고객서비스 향상에 탁월한 성과를 보인 이현C주유소가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이외에도 지역별, 운영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50개 주유소 및 충전소가 “에스-오일 챔피언스 클럽”으로 선정됐다.

S-OIL 수베이 CEO는 이날 시상식에서 “고유가로 인해 어려운 영업여건 속에서도 모범적인 주유소 운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신 주유소 및 충전소 운영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S-OIL과 주유소·충전소는 상호 동반자로서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해나가며 신뢰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담도폐쇄증 어린이 간이식 수술비 지원

S-OIL이 담도폐쇄증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 가운데 간이식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 환자 4명에게 간이식 수술비를 전달했다.

S-OIL은 지난 6월 2일 마포구 공덕동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김동철 사회봉사단장(수석부사장)과 차홍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및 수혜 환우와 보호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이식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 담도폐쇄증 어린이 4명의 간이식에 필요한 비용 전액 1억2천만원(각 3천만원)을 전달했다.

김동철 사회봉사단장은 “병실 혹은 가정에서 병마와 싸울 수 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이 저희의 작은 정성으로 밝은 웃음을 다시 찾길 바란다.”며 “담도폐쇄증 어린이들과 가족들 곁에 S-OIL이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 ‘행복나눔 주유소 사회봉사단’ 발족

S-OIL은 전국의 계열주유소 250곳이 동참한 가운데 ‘행복나눔 주유소 사회봉사단’을 발족, 에너지 소외이웃 돕기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한다고 지난 5월 15일 밝혔다.

S-OIL이 지난 5월 초부터 판매지사 영업사원들과 함께 사업장별로 주유소 사회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인근 사회복지 시설에 후원금 기부와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S-OIL 관계자는 “주유소 사회봉사단에 동참한 250곳의 주유소에 ‘행복나눔 N’ 마크를 부착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이들 주유소로부터 아동센터, 장애인·노인시설 등 복지시설을 추천 받아 총 5억 원을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주유 고객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나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특전사에서 ‘찾아가는 노란음악회’ 열어



S-OIL은 지난 5월 3일 특수전사령부(특전사)를 방문하여 위문공연을 펼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저녁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특전사 연병장에서 진행된 ‘노란음악회’는 특전사 장병과 아크(Akh) 부대를 비롯한 해외파병 장병의 가족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기 걸그룹 티아라, 가비엔제이, 주얼리, 시스타의 공연과 장병들의 특공무술, 군악대 연주가 펼쳐졌다.

이날 아흐메드 에이 수베이 S-OIL CEO는 신현돈 사령관에게 대형 세탁기 10대를 전달하고 대 간첩 및 테러작전, 해외파병 등 국내외 작전에서 완벽한 임무 수행으로 용맹을 떨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현대오일뱅크, 연평도 학생 위해 급식설비 지원



현대오일뱅크가 식자재 저장시설 부족 등 학생급식에 어려움을 겪던 연평도내 학교에 대형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 최신 급식설비를 전달했다.

현재 연평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 1개교씩 있는데 초등학교 식당을 급식소로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영세 소매상이 급식에 필요한 쌀과 부식을 공급하고 자체 저장시설에 음식물을 저장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식자재 공급과 저장을 담당했던 소매상이 인력 문제로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져 재계약을 포기한 것. 이 사연을 전해들은 현대오일뱅크는 대형 냉장고 등 급식에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학교측에 전달했고, 지난 5월 27일, 현대오일뱅크는 '미래호'를 통해 대형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등 음식을 저장설비를 연평도 학교에 보냈다. 연평초중고등학교 김영세 교장은 "무더운 여름철이 다가와 음식물 저장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현대오일뱅크 지원으로 학생 건강과 안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직원 초등 자녀, 여름캠프에 초대합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생산·중설사업본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제1회 임직원 자녀 여름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여름캠프는 대산본사 임직원 자녀 중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오는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울산과 경주에서 펼쳐진다. 참가자들은 세계 1위 산업현장인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를 견학하고, 점성대

볼국사 한옥마을 등 경주의 대표적인 유적지를 방문한다. 이와 함께 워터파크 물놀이, 레크리에이션 등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구성,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앞으로 매년 1회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임직원 자녀 여름캠프'를 실시할 예정이며, 대산본사와 서울·지역본부로 나눠 격년제로 진행할 방침이다.

우수 자영주유소 '중국 간담회' 실시



현대오일뱅크가 전국 우수 자영주유소 운영자 200명을 초청해 2011 DODO 해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9일, 16일 두 차례에 걸쳐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서안에서 진행되었으며, 권오갑 사장과 영업본부 임원진이 참석하였다. 이날 논의된 우수 주유소 운영 사례 및 현대중공업 편입 이후 달라진 마케팅 정책, 주유소 운영 애로사항 등 운영자들의 의견은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한편, 현대오일뱅크는 주유소, 충전소 대표자들의 로열티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2003년부터 9년째 국내외 간담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서울사무소, 경영진과의 대화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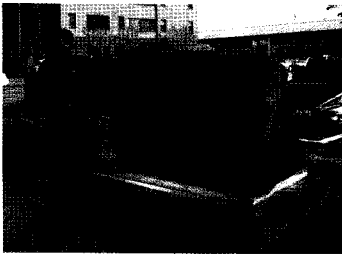
현대오일뱅크 권오갑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직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경영진과의 대화'를 실시했다.

경영진과의 대화는 경영진과 직원이 금요일 저녁을 함께하며 진솔하게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지난 4월 1일 글로벌사업본부를 시작으로 진행됐으며, 6월 24일까지 서울사무소 31개 팀이 참

여해 총 1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경영진과의 대화에 참석했던 한 임직원은 “사실 같은 건물에 근무하면서도 경영진과의 만남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평소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10년 만에 제 자리로 돌아온 현대 사훈석



지난 4월 16일,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본관 앞마당에서는 의미있는 작업이 진행됐다. 10년 동안 자취를 감췄던 ‘근면(勤

勉, 검소(儉素), 친애(親愛)’의 현대 사훈(社訓)이 새겨진 표지석이 다시 제자리로 복원 된 것.

무게 6톤, 가로 2m, 세로 1m, 둘레 5.7m크기의 이 사훈석(社訓石)은 지난 1997년 현대그룹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 세워졌다. 하지만 이 사훈석은 세워진지 5년만인 지난 2002년에 자취를 감췄다. 외환위기 이후 현대오일뱅크가 그룹에서 계열 분리되고, 외국계 대주주로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사라진 것이다.

그로부터 약10년, 현대 정신을 간직한 사훈석은 현대오일뱅크 노조위원장의 숨은 노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

외국계로 경영권이 넘어가 그대로 폐기되거나 땅속으로 묻힐 위기에 처한 사훈석을 노조위원장이 사비까지 털어 밤새 자신의 집으로 옮겨 놓았던 것.

김태경 노조위원장은 현대중공업이 다시 외국계로부터 회사를 되찾아 오자 그동안 자신의 집에서 보관해 오던 사훈석을 회사에 기증했다. 10년의 세월에도 보존 상태가 양호해 별도 보수작업 없이 다시 제자리에 복원되었다.

김태경 노조위원장은 “비록 경영권이 외국계로 넘어갔어도 오일뱅크의 뿌리인 현대 사훈석이 그냥 버려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 만은 없었다”며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집에서 보관해 둔 사훈석을 다시 복원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대 ‘드림콘서트’ 10년만에 부활



현대오일뱅크가 현대중공업 가족으로 새롭게 편입된 이후 10년만에 국내 최대 규모의 ‘드림콘서트’를 부활시켰다. 현대오일뱅크는 미래 잠재고객인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콘서트’를 지난 5월 28일 서울 상암월드컵 주경기장에서 개최하였다.

드림콘서트는 미래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밝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문화 마케팅으로, 당대 최고의 톱가수와 뮤지션이 총 출동하는 꿈의 콘서트이다.

약 5만명의 청소년들이 상암경기장에 모여든 드림콘서트는 무대, 조명, 음향 등 최첨단 장비가 총 동원된 특수효과와 생생한 가수들의 라이브가 어우러져 ‘꿈의 무대’를 선보였다.

보너스카드, 안드로이드용 어플 출시

현대오일뱅크가 지난 5월 16일 보너스카드 안드로이드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 이에 따라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사용고객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각종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어플은 기존 보너스카드 기능은 물론,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한 주유소 검색, 인근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가격 정보 등을 서비스한다.

또한 현대오일뱅크 보너스카드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이벤트 및 각종 할인쿠폰 등을 제공해 고객의 편의성을 크게 확대했다. 보너스카드 어플은 안드로이드 마켓을 이용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